

# 한국 SF와 ‘만들어진 신’의 상상력

오윤호(이화여대)

## 1. “SF비평세미나”에 대한 소개

SF비평 세미나팀의 시작은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로운 회장단(박숙자 전 회장, 오윤호 전 연구부장)이 꾸려진 대중서사학회는 “21세기 디지털 문화와 매체 변화, 그에 따르는 감각의 변화는 전통적인 문학과 예술 장르의 급격한 재개념화 및 재맥락화를 요구”에 주목하여, 연구팀을 SF팀(1팀), 로맨스팀(2팀), 판타지 서사와 매체(3팀)을 구성하였다. SF팀은 “대중문화와 학계는 사이언스 픽션에 대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인)문학적 상상력으로서의 사이언스 픽션 장르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 사이언스 픽션의 재개념화를 통해 그 특수성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2010년대는 한국문학에 있어서 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지식에 대한 결합을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근대초기 문학 현상 속에 녹아 있는 다양한 과학적 상상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이어졌고, 특히 포스트휴먼과 같은 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명 속에서 SF는 더 이상 미래의 상상력이 아니라, 현실의 리얼리티를 담은 문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SF와 관련된 대학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했다.<sup>1)</sup> SF팀은 이러한 시대 변화를 장르적 변화의 가능성으로 재인식하고자 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팀원으로 오윤호, 이지용, 전지니, 이정옥, 최배은, 최애순을 포함하여 8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세미나를 기획·운영하였다.

	내용
1차	2018년 11월 10일(토) : 이지용의 [한국 SF의 형성]
	2018년 12월 22일(토) : 문운성의 [완전사회]
	2019년 1월 19일(토) : 서동수의 [북한 과학환상문학과 유토피아]
2차	2019년 5월 11일(토) : 장정희의 [SF문학의 이해] 1회
	2019년 6월 15일(토) : 장정희의 [SF문학의 이해] 2회
	2019년 8월 17일(토) :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의 [체체파리의 비법]

세미나를 운영하며, 먼저 현재 한국 SF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 이지용, 서동수, 장정희 선생님의 책들을 중심으로 SF 연구의 현재와 이론의 가능성을 다루었고, 한국의 대표적인 최초인 장편소설인 문운성의 [완전사회]를,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의 [체체파리의 비법]을 비평적 시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세미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장르서사 특집기사에 연재를 시작하였고,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SF세션을 구성하여 발표하게 된다.

	날짜	필자	제목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9.06.	이지용	데이터화된 몸(신체)과 SF, 포스트휴먼
	2019.07.	최애순	임신하는 로봇과 불임의 인간
	2019.08.	최배은	멸망하는 세계, 아이들은 살아남는다!

1) 이화여대에서 ‘사이언스 픽션의 이해’라는 과목이 2014년 2학기부터 개설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음.

	2019.09. 2109.10. 2019.11.	김성연 오운호 노대원	미래의 냄새, SF가 선도하는 감각의 변화 젠더적 한계를 벗어나려는 '그녀'들의 꿈 미래의 인간은 고통에서 해방될까?
<뉴미디어 시대, 장르의 재발견>	2019. 10.05.	이지용 전지니 최배은 김성희	웹소설 시대 환상의 새로운 의미 - 판타지와 SF장르의 소재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과학적 상상력의 무대화에 대한 시론 - 'SF연극'의 현황과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 아동·청소년 과학소설의 디스토피아 공간 연구 - 우주 시대(1960년대)부터 인공지능 시대(2010년대)까지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죽음: 뉴미디어 시대 복한 SF의 위기와 변화

이러한 두 가지 학술 활동을 통해 SF팀은 SF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보다 심화된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서사학회 연구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초까지 3개팀이 함께 폴 플라이의 [문학이론]을 연구하면서, 21세기 문학이론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장르문학의 가치를 재구축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을 수행했다.

SF팀이 본격적으로 'SF비평세미나'로 이름을 바꾸고, 이화인문과학원과의 공동 기획 및 공동 학술대회 운영을 함께 시작하여, 전면적으로 SF이론 연구 및 작가와의 대화를 통한 연구역량을 확장하게 된다. 대중서사학회와 이화인문과학원이 마련한 'SF비평 세미나 초대글'에는 "한국 대중 서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중서사학회가 에코테크네 인문학 연구를 주도하는 이화인문과학원과 함께, SF 리더러시를 함양하고, 이론과 비평을 공부하기 위해 공동 기획으로 "SF 비평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개하며, 세미나 참여 및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로버트 스콜즈와 에릭 S. 리프킨의 [SF의 이해]을 중심으로 21년 10월 첫째주 토요일에 줌으로 세미나를 시작하여, 22년 3월까지 세미나를 이어간다. 시즌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인간이 비주류가 되는 지구에 대한 이야기-천선란 작가와의 대화"가 진행됨으로써, 21세기 한국 SF의 미래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SF CRITICISM SEMINAR**  
[SF의 이해] 로버트 스콜즈 에릭 S.라프킨

**2021 ~ 2022 SF 비평 세미나**

**OCTOBER**  
SF의 기원 (1-26쪽)  
발제자: 오운호  
10월 2일 11시

**NOVEMBER**  
웰즈와 미국의 대중잡지 시대 (~ 60쪽)  
발제자: 이지용  
11월 13일 11시

**DECEMBER**  
반(反)SF와 SF의 황금 시대 (~ 95쪽)  
발제자: 전지니  
12월 11일 11시

**JANUARY**  
60년대 이후 SF의 새로운 경향 (~ 134쪽)  
발제자: 이정욱  
1월 8일 11시

**FEBRUARY**  
영상 미디어와 SF (~150쪽)  
발제자: 최배은  
2월 12일 11시

**MARCH**  
21세기 한국 SF의 힘  
발제자: SF 작가  
3월 12일 11시

Cafe ZOOM 네이버카페 / sferitics  
303 101 9093  
대중서사학회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기획

**인간이 비주류가 되는 지구에 대한 이야기**  
천선란 작가와의 대화  
2022.3.12  
대중서사학회·이화인문과학원 기획

SF비평세미나 시즌2는 22년 4월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세릴 빈트의 [에스에프 에스프리]를 통해 21세기 SF비평의 방향성을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



이 시즌 마지막에는 책의 저자인 세릴 빈트와의 만남을 통해 미국 SF 연구의 향방을 가늠하는 기회를 가졌다.



시즌3은 세릴 빈트의 공저인 [SF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작가와의 만남은 심완선 작가와 [SF와 함께라면 어디든]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 시즌4는 스티븐 사비로의 [탈인지]를 중심으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세미나를 진행한 후 최애순 선생님의 [한국과학소설사]를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이렇게 진행된 총 4번의 시즌은 대중서사학회와 이화인문과학원 공동 주최 국내학술대회 <에코테크네 시대, 한국 SF의 기원과 전개>로 결실을 맺게 된다. “한국에서 SF의 위상, 그리고 시대와 문화적 환경에 맞게 진화 발전해 온 정체성을 밝히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시대에 SF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려고 합니다.”라는 학술대회 초대글을 통해, 두 연구 기관이 추구하는 학술적 방향성을 SF를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 총 14명이 발표하였는데, 조지 히라오카 클라크의 사변적 사운드 디자인 발표와 같은 독특한 예술영역이 소개되기도 했고, 포스터 발표라는 새로운 발표 방식을 도입하여 이후 다양한 문학 학술대회에서 차용되기도 하였다.

2023년 대중서사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 에코테크네 시대, 한국 SF의 기원과 전개

| 일시 | 2023년 9월 16일(토요일) 오전 10시 ~ 17시 30분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 161호

| 줌주소 | <http://ewha.zoom.us/j/3031019093?pwd=V1oxZjNHWHBoTTdzVhOUURaWJlGZz09>  
회의 ID: 303 101 9093 / 암호: 9093

일정	발표 및 내용	비고
1부 10:00-12:30	개회사, 축사	오윤호(대중서사학회 회장) 김진희(이화인문과학원 원장)
	<b>21세기 한국 SF의 전개</b>	사회: 이솔(이화여대)
	이지용(중앙대): 현대 한국 SF의 장르적 패러다임과 개별적 특징들 - 1990년대 이후부터 2020년대 작품 발표 양상을 중심으로	토론: 심원선(SF평론가)
	김은정(가천대): 순정과 SF의 조우: 90년대 SF 순정만화 속 비인간 타자들	토론: 류수연(인하대)
	최배은(숙명여대): 최근 청소년SF의 '자기돌봄' 서사 연구 - 다중 우주적 상상을 중심으로	토론: 김유진(어린이문학평론가)
	최애순(계명대): 북한 고급중학교 국어문학(2013)에서의 과학환상소설과 한국 과학소설의 교과서 수용과 수록 가능성	토론: 김민선(한양대)
12:30-13:30	점심 식사	
2부 13:30-14:30	<b>포스터 논문 발표: 한국 SF의 장르적 확산</b>	사회 겸 토론: 전지니(한경대)
	강은교(이화여대): 듀나, 한국 SF의 가장 중요한 참조점	
	손진원(고려대)·김경채(계명대): 새로운 관계맺기의 조건들 - 듀나의 <면세구역>, <태평양 횡단 특급>를 중심으로	
	홍덕구(포항공대): 한국 현대 SF의 과학연구/연구자 재현양상 - 김초엽, 심너울, 정보라 소설을 중심으로	
	장미례(단국대): SF 통화에 나타난 여성 노인 캐릭터 연구	
양근애(영지대): 동시대 연극에 나타난 인류세의 위기와 (비)인간의 미래		
3부 14:30-15:00	<b>특별 초청 발표: SF와 사운드 아트의 세계</b>	사회: 노대원(제주대) 번역 발표문 제공
	조지 히라오카 글라크(사운드 아티스트): Solarpunk Soundscapes: Imagining Eco-Cities Through Speculative Sound Design	
15:00-15:10	중간 휴식	
4부 15:10-17:30	<b>SF의 에코테크네 상상력과 젠더 정체성</b>	사회자: 공임순(서강대)
	노대원(제주대): 인류세 아포칼립스와 노바세(Novacene) 유토피아 - 한국 Cli-Fi 서사의 AI	토론: 정은경(중앙대)
	오윤호(이화여대): 에코테크네 디스토피아와 생명정치의 타자들: 천선란의 <이끼숲>을 중심으로	
	장은애(국민대): 퀴어(Queer)와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상상력의 만남 - 이종산, 『커스터머』(문학동네, 2017)를 중심으로	토론: 황지선(이화인문과학원)
연남경(이화여대): 사변적 페미니즘 SF와 포스트 감수성의 혁명-진정성의 주체에서 감각하는 존재자로		

| 주최 | 대중서사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 후원 | 한국연구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시즌5에서는 24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SF 연구자의 논문을 함께 읽는 기회를 가졌다.

날짜	발표자	제목
24년 1월 6일	홍덕구	한국 현대 SF의 과학자 재현양상 - 김초엽, 심너울, 정보라 소설을 중심으로
3월 2일	강은교	페미니스트 세계만들기(worlding)로서 듀나의 SF에 대한 연구
4월 6일	오윤호	김보영 SF 논문

시즌6, 시즌7, 시즌8은 보다 SF이론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미나 책과 주제가 정해졌다. 시즌6에서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다코 수빈의 [SF의 변신]을 읽으면서, 1970년대 미국 SF이론을 그 출발점부터 살펴볼 수 있었고, 시즌7에서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토마스 M. 디쉬의 [SF 꿈이 만든 현실]을 읽으며 미국 SF가 변화발전해 온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시즌8에서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쾡탱 메이야수의 [형이상학과 과학 밖 소설]을 세미나했다.



이러한 학술적 활동은 2026년 2월 20일 바로 이 학술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 SF의 이론화 및 담론화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4월말에는 이화인문과학원과의 공동 기획으로 [한국SF 비평의 미래](가제)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 2. 한국 SF 비평의 양상2)

2020년대 들어 한국 문학계에는 유례없는 SF 열풍이 불고 있다. 오랫동안 리얼리즘의 전통 속에서 뚜렷한 미학적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2019)<sup>3)</sup>과 <지구 끝 온실>(2021)<sup>4)</sup>, 천선란의 <천 개의 파랑>(2020)<sup>5)</sup>과 <이끼숲>(2023)<sup>6)</sup>이 연이어 출간되며 SF 장르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장르문학의 확산이나 독자 취향의 변화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이들의 작품은 단순한 장르적 참신함이나 그 확장을 넘어, 동시대의 불안과 희망을 SF 상상력으로 포착해 내는 데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 이는 21세기 후반기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2) 이 내용은 필자의 「21세기 사변소설과 포스트휴먼 형상들 - 세릴 빈트의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 치적 미래』를 중심으로」(『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2025)의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다.

3)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 허블, 2019.

4)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5) 천선란, <천개의 파랑>, 허블, 2020.

6) 천선란, <이끼숲>, 자이언트북스, 2023.

근본적 구조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신자유주의적 생명정치의 심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들이 SF적 상상력에 대한 필요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SF의 부상은 전 지구적 위기와 기술적 전환기를 맞아, 문학이 어떻게 시대와 호흡하며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1세기 SF비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장원은 『세계과학소설사』(2008)<sup>7)</sup>를 쓰면서 한국 SF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저술 성과에 대해 논하면서, 2008년 이전에 한국에서 SF에 대한 저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 같이 깊이 있는 연구서라기보다는 과학소설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개”<sup>8)</sup>한다고 평가하며 한국 SF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로버트 E. 스콜즈와 에릭 S. 랩킨이 1977년에 쓰고, 1993년에 한국어로 번역된 『SF의 이해』<sup>9)</sup>가 “미국에서 과학소설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연구서”라고 말하며, SF를 과학지식과 문학적 상상력이 결합된 문학 형태로 규정하며 학술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SF의 이해』는 SF의 역사를 신화시대부터 1980년대 이전까지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며, SF를 현대적 장르로만 국한하지 않고,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상상력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며, SF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문학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을 계승한 문학임을 보여준다. “3. SF와 과학”에서는 물리학, 천문학, 열역학, 생물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가 어떻게 SF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작의 출발점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4. 형식과 주제” 장에서는 신화, 유토피아, 가상의 생물 등 인류가 오랜 세월 문학을 통해 탐구해 온 주제들이 SF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발전하는지를 살펴본다. 스콜즈와 랩킨에게 SF는 당대 과학지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과학지식을 문학적 형식과 주제를 통해 구현한 독특한 문학 양식으로 이해하려는 문학관을 잘 보여준다. “5. 10대 SF”에서 『프랑켄슈타인』부터 『충격파를 타고』(1976)라는 작품까지 10권의 정전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 장르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주요한 SF 작품들을 서술함으로써, 대중문학으로만 여겨지던 SF에 문학적 권위를 부여하고, 진지한 연구 대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 책은 1993년에 한국어로 번역됨으로써, PC통신과 인터넷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SF 팬덤 형성과 2000년대 SF가 자리잡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8년에 쓰여진 고장원의 『세계과학소설사』는 앞서 소개한 『SF의 이해』와 같이 SF에 접근하기 위한 역사적 이해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남한과 북한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SF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서구 중심의 SF 역사와 더불어 20세기 한국 SF의 모습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서문에도 저자가 강조하고 있듯 국내 최초이지만 한국 SF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나 비평적 작업의 완성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SF란 무엇인가-SF 가이드 총서4』(2015)<sup>10)</sup>는 SF의 정의, 환상소설과의 차이, 하드 SF와 소프트 SF의 구분, SF의 문학적성 논쟁 등을 중요한 장으로 제시하면서, SF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그 이론화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또한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이어지는 서구의 SF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한국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SF 연구가 진행된 양상을 정리하고 있어, 한국 SF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7)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8)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2008, 50쪽.

9) 로버트 E. 스콜즈·에릭 S. 랩킨, 『SF의 이해』, 김정수·박오복 역, 평민사, 1993. 이 책의 원전은 로버트 E. 스콜즈(Robert E. Scholes)와 에릭 S. 랩킨(Eric S. Rabkin)이 쓴 *Science Fiction: History, Science, Vision*(1977)이다.

10) 고장원, 『SF란 무엇인가-SF 가이드 총서4』, 부크크, 2015.

토대를 마련해 놓고 있다.<sup>11)</sup>

이러한 성과와 함께, 장정희의 『SF장르의 이해』<sup>12)</sup>는 기존의 SF 저술들과는 달리 SF에 대한 교육적·비평적 시각을 전면화함으로써, SF 이론을 정식화하고, SF 비평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전의 저술들이 SF 정전을 중심으로 SF의 역사를 풀어나갔다면, 장정희는 21세기의 기술문명이 만들어내는 “현재”로 SF를 가져온다.

최근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국이나 드론, 3D 프린터의 개발 등 각종 첨단 기술 발전으로 SF<sub>Science Fiction</sub> 속 가상세계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 있다. 특히 정보공학 및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SF와 현실의 경계를 급속히 무너뜨리고 있으며 우리 삶의 패턴이나 가치관은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급변하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미래 삶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SF 장르는 흥미로운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머리말 중에서)

장정희는 21세기 첨단 기술 문명과 생명공학의 발전 속에서 우리 혹은 전지구적인 삶이 변화하는 가운데, ‘SF와 현실의 경계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시각은 그동안 SF를 B급 문학으로 취급하거나, 허구적인 상상력으로 매도하려던 논의들을 반박하면서, ‘SF가 우리 시대의 리얼리즘 소설이 되고 있음’을 통찰하지만, 사실 이러한 학술적 논의는 책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책은 SF가 “미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SF의 교육적 효용 가치에 주목한다. 서문에서 SF가 “실제 우리 삶과 연관될 수 있는 주요한 학습 영역”이라고 정의하고(11쪽),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SF를 교육하는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함”(12~13쪽)을 강조한다. “SF교육의 모듈구성”이라는 목적에 따라, “1장 SF의 범주”에서는 스페이스 오페라와 우주여행, 시간여행과 대체역사, 외계인, 유토피아/디스토피아 등 SF의 주요 하위장르들의 특성과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2장 SF와 비평이론”의 경우 주목받는 SF와 관련된 주요한 비평이론인 마르크시즘,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테크노오리엔탈리즘 등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3장 첨단기술과 SF”에서는 사이보그론,사이버스페이스론, 나노기술 등과 같은 우리시대의 첨단 기술문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서문의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SF의 주제나 모티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 비평적 시각을 가지고, 현시대의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고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서구의 SF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SF 비평의 중요한 지평을 형성한다는 점, 그리고 SF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사고의 대상이 되며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학 영역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책은 큰 의의가 있지만, 서구 중심으로만 SF 작품 및 비평 이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2017년에 한국어로 번역된 토마스 M. 디쉬의 『SF 꿈이 만든 현실』<sup>13)</sup>은 작가이면서 비평가인 이중적 정체성이 만들어낸 독특한 SF 비평서로, 20세기 미국 SF가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디쉬는 『강제 수용소』(*Camp Concentration*, 1968) 등의 고전 SF를 창작한 내부자적 경험을 바탕으로, SF와 종교 운동(사이언톨로지, 헤븐스게

11) 고장원의 저술들은 SF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 SF 역사 및 작품 소개와 팬덤에 기반한 저널리즘적인 내용이 강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보다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장정희, 『SF장르의 이해』, 동인, 2016.

13) 토머스 M. 디쉬, 『SF 꿈이 만든 현실』, 체계병 역, 이카루스미디어, 2017.

이트)의 연관성, 미국 군사 정책(레이건의 스타워즈 계획)에 미친 영향, 미국 사회가 기술을 대하는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특히 L. 론 허버드의 사이언톨로지 같은 사이비 종교나 SF의 과대광고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소설가로서의 문학적 감각을 결합하여 단순한 팬덤적 옹호나 학술적 거리두기를 넘어선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SF를 문학 장르를 넘어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의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SF 비평의 지평을 확장하고, 장르가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성찰적 비평의 모델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20세기 미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 이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나 학술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2020년대 이후 한국 SF에 대한 보다 장르적이고 실천적이면서도 비평적 이론화의 가능성을 열었던 것이 세릴 빈트이다. 세릴 빈트는 『에스에프 에스프리』(2019)<sup>14</sup>와 『SF연대기』(2021)<sup>15</sup>을 통해 SF 장르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틀과 실천적 비평의 방법론을 한국SF에 제시하게 된다.

『에스에프 에스프리』(2019)<sup>16</sup>는 SF를 과거로부터 창작되어온 문학 장르가 아닌 ‘기술 문명이 만연되어 있는 현재’를 인식하는 가운데 미래를 상상하는 문학 장르로 설정하고, 인지적 소외·노봄·메가텍스트·사변소설·실천공동체 등의 비평적 용어를 구체적으로 이론화하고 있다. 특히 빈트는 SF가 ‘노봄(novum)’과 ‘인지적 소외(cognitive estrangement)’<sup>17</sup> 효과를 통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다코 수빈(Darko Suvin)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다코 수빈은 『SF의 변형: 시학과 문학사에 관한 연구』(*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a Literary Genre*, 1979)에서 SF를 “인지적 소외와 노봄을 지배적 문학 장치로 삼는 문학 장르”(pp.3-7)로 정의한 바 있다. 수빈의 이론적 틀에서 노봄은 텍스트 내에서 경험적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요소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환상적 요소와는 구별되는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혁신을 의미한다. 인지적 소외는 이러한 노봄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일상적 현실을 낯설게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되는 미학적 효과를 의미한다. 빈트는 이러한 수빈의 개념을 21세기의 테크노사이언스 현실에 맞게 재맥락화하면서, ‘7장 신념의 문학’과 ‘8장 변화의 문학’에서 SF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거나 기술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는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장르임을 강조하며, SF를 과학기술과 인간, 사회의 관계를 성찰하는 동시대적 사유의 핵심적 양식으로 자리매김한다.

『SF연대기』(2021)<sup>18</sup>에서는 SF 장르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각 시대의 사회 정치적 맥락과 SF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한다. 빈트는 이 저작에서 SF를 단순한 문학 장르가 아닌 ‘메가텍스트(megatext)’로 개념화하는데, 이는 개별 작품들이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되어 형성하는 거대한 담론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특히 그녀는 SF 팬덤과 작가, 비평가들이 형성하는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가 어떻게 장르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재정 의하고 확장해 왔는지를 상세히 추적한다. 1920년대 휴고 건스백(Hugo Gernsback)의 『어메이징 스토리즈』(*Amazing Stories*, 1926~현재) 창간부터 21세기 기후픽션(cli-fi)과 아프로퓨처리즘(Afrofuturism)의 부상까지, SF의 역사를 여섯 개의 주요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각 시기마다

14) 세릴 빈트, 『에스에프 에스프리』, 전행선 역, 정소연 (해제) 역, 아르테, 2019.

15) 세릴 빈트·마크 볼드, 『SF연대기』, 송경아 역, 허블, 2021.

16) 이 책은 세릴 빈트가 2014년에 쓴 *Science Fiction: A Guide for the Perplexed*(2014)을 번역한 것이다.

17) 인지적 소외는 독자가 작품 내에서 낯선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일상적 세계관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인지적 변형 과정을 의미한다.

18) 이 책은 세릴 빈트가 마크 볼드와 같이 쓴 *The Routledge Concise History of Science Fiction*(Routledge, 2011)를 번역한 것이다.

SF가 당대의 기술적 불안, 정치적 갈등,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굴절시켜 표현했는지를 보여주는 데, 특히 냉전 시대의 핵 공포, 1960~70년대의 뉴웨이브 운동과 페미니스트 SF, 1980년대 사이버 펑크의 등장, 그리고 최근의 포스트휴먼 담론과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의 생태학적 상상력이 SF 장르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정치하게 분석한다. 빈트는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SF가 각 시대의 사회적 관심사와 실천공동체의 활동에 따라 표현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해 왔음을 논증하며, 오늘날 SF가 기후위기,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도전들을 사유하는 데 필수적인 비평적 도구임을 역설한다.

우선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빈트의 SF 비평이론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SF를 선형적 진보의 서사나 단순한 장르적 관습의 집합이 아닌, 각 시대의 특수한 사회기술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 담론 체계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연대기적 SF 역사 서술이 전제하는 발전론적 시간관을 해체하고, SF가 지닌 시간적 복합성과 다층적 현실 인식의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빈트에게 SF는 선형적으로 진화하는 장르가 아니라, 각 시대의 고유한 문제의식과 상상력의 지평 속에서 독특한 주제와 형식을 창출하며 스스로를 갱신하는 살아있는 담론 체계인 것이다.

이 두 책의 기여는 한국 SF 비평이 직면한 근본적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빈트가 제시한 인지적 소외 및 노름, 메가텍스트와 실천공동체 개념은 특히 한국 SF 팬덤과 창작자, 비평가들이 형성하는 역동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2020년대 한국적 SF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단서를 제공한다. 사실 거대한 SF 작품의 흐름 속에 놓인 서구 SF에 비해 한국 SF의 규모는 초라하다. 그러나 기존의 역사적 개괄이나 장르적 분류에 머물렀던 한국 SF 연구를 넘어서서, SF를 현대 사회의 복합적 현실을 사유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비평적 도구로 재정립하는 이론적 기반은 한국 SF가 단순히 서구 SF의 모방이나 번역 수용에 그치지 않고, 한국적 현실의 특수성과 인류 보편의 미래 전망을 동시에 담아내는 독자적 사유와 창작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1세기 SF는 현재의 사회적 모순과 미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사유할 수 있는 비평적 도구로 기능하게 되었다. 전통적 리얼리즘 문학이 경험적 현실의 재현에 천착한다면, SF는 ‘아직 오지 않은 것’과 ‘이미 도래한 미래’를 동시에 포착함으로써 현재를 낫설게 만들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21세기의 기술과학 및 생명공학의 현실이 일상을 급속히 변형시키는 상황에서, SF는 기존의 리얼리즘 문학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동시대의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인식 체계로 부상하게 된다.

### 3. 셰릴 빈트의 포스트휴먼 형상과 김보영이 상상한 “만들어진 신”

그런 점에서, 셰릴 빈트의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2021)<sup>19)</sup>는 사변소설을 단순한 재현의 양식이 아닌 현실을 구성하는 담론적 기제로 재정의하면서, 한국 SF 비평이 서구 중심적 장르사나 작품 분류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에피바이탈리티 개념과 네 가지 포스트휴먼 형상(불멸의 그릇, 살아있는 도구, 생명 기계, 예비 부품)은 21세기 신자유주의 생명정치가 어떻게 생명을 자본에 실질적으로 포섭하는

19) Sherryl Vint, *Biopolitical Futures in Twenty-First-Century Speculative Fi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본고에선 『21세기 사변 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라고 표기하려고 한다.

지를 분석하는 강력한 비평 도구로서, 2020년대 한국 SF 비평의 중요한 방법론적 토대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빈트의 작업에는 주로 영미권 작품에 집중함으로써 비서구 지역의 사변소설이나 탈식민적 관점에서의 생명정치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빈트의 포스트휴먼 형상들은 미국적 신자유주의 생명공학 산업, 할리우드 SF, 그리고 서구 기독교적 창조론이라는 매우 특수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생산된 개념이다. 이 틀을 한국 SF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 문학이 고유하게 발전시켜온 존재론적 상상력이 지워지거나 영미 중심적 분석의 하위 사례로 환원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는 김보영의 초기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생명, 진화 그리고 초월의 존재론」<sup>20)</sup>은 김보영 초기 단편집이 헤겔의 반복발생설을 재해석하면서 개체적 생명 안에 계통발생의 흔적이 각인되어 있다는 상상력을 일관되게 전개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상상력이 진화론의 생물학적 언어를 빌리면서도, 「진화신화」에서 태자가 용이 되어 승천하거나 호랑이가 지혜를 가르치는 장면에서 드러나듯, 인간·동물·신령 사이의 경계가 원래부터 유동적인 한국 전통 우주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생태 위기와 기술적 적응」<sup>21)</sup>에서도 확인되듯, 김보영의 「종의 기원담」 시리즈는 로봇이라는 존재를 통해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를 탐색하지만, 그 탐색의 방식은 빈트의 에피바이탈리티가 전제하는 경계 해체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존재론적 권위 자체가 어디에 근거할 수 있는가라는 형이상학적 불안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상상력은 2023년 출간된 『종의 기원담』에서 더욱 심화된 방식으로 전개된다. 「에코테크네 생태의 비극과 포스트휴먼의 위치」<sup>22)</sup>는 이 소설집이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세계관 위에서 구축되어 있으며, 지구 위의 생명에 대한 상대주의적 시각과 과학 혹은 이성 중심의 사고가 갖고 있는 한계를 폭로"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케이는 인간의 포스트휴먼이면서 인간을 실험실에서 창조하는 과학자이기도 하며, 로봇세의 윤리적 문제로 유기생물을 말살하는 에코사이더이기도 하다. 시아는 로봇이 창조한 피조물 포스트로봇이면서도, 로봇을 창조한 신의 목소리를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층적 다원적 정체성은 포스트휴먼의 존재성을 본질적으로 확정하여 설정할 수 없고, 다양한 존재(생명)와의 관계성 속에서 재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유동성의 상상력이 초기 단편집 『종의 기원담』으로 이어지는 김보영 작품 세계의 일관된 흐름이 보여주는 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빈트의 포스트휴먼 형상 이론과 김보영의 『종의 기원담』(2023)에 나타난 신(神)의 상상력을 함께 읽음으로써, 세릴 빈트의 포스트휴먼 이론과 한국 SF의 존재론적 상상력 사이의 차이와 연결가능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세릴 빈트의 책 속 SF 이론에서 에피바이탈리티, 포스트휴먼 형상, 잉여 생명력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첫째는 빈트는 생명과 비생명, 주체성과 객체성의 경계가 해체되는 21세기의 조건을 에피바이탈리티<sup>23)</sup>로 개념화하는데, 이는 마르크스의 노동 포섭 개념을 생명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생명공학을 통해 생물학적 과정 자체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재조직됨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유기체와 비활성체의 경계 소멸, 생명 가치의 불평등한 위계화, 생명의 광범위한 상품화,

20) 오윤호, 탈경계인문학, Vol. 16, No. 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3

21) 오윤호, 영주어문, Vol. 52, 영주어문, 2022.

22) 오윤호, 문학과 환경, Vol.23, No.1, 문학과환경학회, 2024.

23) 세릴 빈트가 제시한 'epivitality'를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다. 접두어(epi) 때문에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비)생명과의 관계(대립) 속에서 서로 뒤섞이고 침윤된다는 의미와 기술적·경제적·정치적 조건 위에서 생명성이 확장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초생명성'이나 '확장생명성'이라 번역하기에는 그 의미가 중층적이다. 본고에서는 '에피바이탈리티'라고 표기하려고 한다.

노동력의 생물학적 능력으로의 전환이라는 네 가지 양상으로 구체화된다.

둘째, 빈트는 푸코의 19세기 생명정치 형상을 대체하는 21세기 형상으로 불멸의 그릇, 살아 있는 도구, 생명 기계, 예비 부품을 제안한다. 불멸의 그릇은 생명의 무한 연장이 자본 축적의 무한성과 일치하는 엘리트의 욕망을 체현하고, 살아있는 도구는 노예제가 생명공학이라는 과학적 합리성으로 위장되어 정당화되는 구조를 폭로하며, 생명 기계는 여성의 재생산 능력이 국가·자본의 자원으로 도구화되는 과정을, 예비 부품은 일부 인간을 타인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자원으로만 취급하는 잔혹한 논리를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이 형상들이 계급·인종·젠더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빈트는 자본이 생명을 완전히 포섭하려 해도 생명은 항상 그 개념적·기술적 포획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잉여 생명력을 포스트휴먼 공동체 구성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을 전유하여, 『종의 기원담』에 수록된 세 편의 연작, 「종의 기원담」, 「종의 기원담: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종의 기원담: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를 분석하고, 앞선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참조하려고 한다.

첫째는 이 연작시리즈 속에는 창조주-피조물 관계의 연쇄적 전도가 두드러진다. 이 소설집에서 창조의 연쇄는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이 유기생명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시아)이 다시 신의 목소리를 내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소설에서 케이는 “로봇을 닮은 유기 생물을 만들어 보려고 해”라는 다짐으로 끝나고, 두 번째 소설에서 창조된 인간은 로봇이 본능적으로 숭배하는 성스러운 존재가 되며, 세 번째 소설에서 시아는 “저는 동등한 자리에서 서로의 이득을 나누는 협정을 맺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며 로봇과의 공존을 제안한다. 이 구조는 창조주의 위치가 고정된 초월적 자리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이동하는 관계적 위치임을 드러낸다. 빈트가 분석하는 서구 SF의 창조주-피조물 서사(『프랑켄슈타인』에서 『웨스트월드』까지 이어지는 피조물의 반란 구조)와 표면적으로 유사하지만, 『종의 기원담』에서 이 전도는 착취 관계의 역전이 아니라 존재론적 권위의 근거 자체를 묻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둘째는 칩에 각인된 신성이라는 에피바이탈리티적 발현은 소설 속 신성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로봇들이 인간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숭배와 공포를 동시에 느끼는 이유는, 로봇을 만든 신이 칩 속에 심어놓은 기억 때문이다. 케이가 인간을 보는 순간 생생한 영혼을 느끼고, 세실이 유기생명을 접하는 과정에서 파란 하늘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꿈꾸게 되는 것 모두, 칩이라는 기술적 매체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던 정보가 발현된 것이다. 이것은 빈트의 에피바이탈리티와 공명하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빈트에게 에피바이탈리티가 자본에 의한 생명 포섭의 증상이라면, 김보영에게 그것은 피조물의 신체 깊은 곳에 이미 각인된 창조의 기억이 뜻하지 않게 발현되는 현상이다. 이는 선행 연구가 분석한 반복발생설적 상상력(개체 생명 안에 계통발생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주장)의 기술론적 심화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시아가 발화를 할 때 이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의 해방을 역설적으로 수행한다. 시아는 로봇이 실험실에서 창조한 유기생명체로, 원래 인간인 창조주가 아니다. 그런데 시아는 “이제 로봇은 다시는 인간의 어떤 명령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로봇류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이라고 명령한다. 명령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그 내용은 명령으로부터의 해방인 이 역설적 수행은, 신의 권위가 기원의 정통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발화의 효과로부터 생겨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내용들은 김보영이 만든 신이 한국적 문화가 표상하는 신의 형상과 연결되었다

는 점을 보여준다. 무속적 신내림에서 인간은 신을 몸에 받아 신의 목소리를 내는 매개자가 되고, 도교적 수련에서 인간은 단계적 수련을 통해 신선의 위치에 오르며, 불교적 우주론에서는 만물에 불성이 편재하여 어떤 존재도 원리적으로 깨달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세 전통이 공유하는 것은 인간과 신 사이의 존재론적 경계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투과될 수 있다는 상상력이다. 빈트의 포스트휴먼 형상이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가”라는 정치경제학적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면, 김보영의 신 상상력은 그와 다른 층위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전면화한다. 빈트의 잉여 생명력이 자본의 포획을 넘어서는 생명의 과잉을 가리킨다면, 김보영의 신 상상력은 창조의 의도를 넘어서는 로봇이든 인간이든 시아든 피조물의 존재론적 과잉을 보여준다.

김보영의 신에 대한 상상력은 2005년 데뷔한 박성환의 「레디메이드 보살」의 상상력과도 중요한 접점을 형성한다. 그 소설은 대량생산된 존재가 보살(菩薩)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상상력을 전개한다. 두 작품 모두 비인간적 존재가 신성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되, 그 신성이 서구적 창조주-피조물의 단절 구조가 아니라 한국적 문화에 기대어 형성화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두 작품이 모두 2000년대 초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개별 작가의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2000년대 초 한국 SF가 서구 SF의 로봇·AI 서사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한국 전통 사상을 통해 독자적인 포스트휴먼 상상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의 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 4. 정리

앞에서 살펴본 논의들은 대중서사학회 SF비평세미나를 수행하면서 펼쳐졌던 학술적 실천의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SF비평세미나는 서구 SF이론의 계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도, 그것이 한국 SF의 전개에 다각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SF 비평의 미래』(가제)는 한국 SF 비평이 하나의 독자적인 담론장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한국 SF 이론의 독자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그것은 서구 이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한국적 상황에 맞게 해체하고 재인식하는 작업들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 SF가 반복적으로 생산해 온 고유한 상상력들이 서구 담론의 변형이 아닌 독자적인 상상력의 산물로 이론화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김보영 작가의 SF는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데뷔 이래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김보영이 일관되게 탐색해온 존재론적 경계의 유동성이라는 주제는, 한국 SF가 서구 SF와는 다른 방식으로 포스트휴먼을 사유해 왔음을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다. 이 상상력의 가치를 이론의 언어로 정식화하는 것이 한국 SF 비평의 다음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4) 신파로 폄하되는 감정적 로봇, 모성을 강조한 로봇, 어린아이로 상징화되는 로봇 등 한국적 포스트휴먼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더 심화되어야 한다.